

5·18 진실 알리려다 빨갱이 몰려 28년간 고통

〈목차〉

- 제1부 되짚어 본 5·18
- 제2부 민주·인권의 가교
- 제3부 긍정에너지로 승화



노월을 넘어 광주를 넘어

5·18 민주화운동 30주년 심층 기획

⑦ '아람회 사건' 피해자 6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30주년이 돼서야 '빨갱이'란 누명을 벗었습니다. 다시는 이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나선 안 됩니다."

지난 3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뜻깊은 재판이 열렸다. 지난 1981년 신군부에 의해 조작된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대해 총 198억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광주항쟁 실상 알리려다 '빨갱이' 누명=박해진(55)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 6명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실을 알리려다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박씨 등은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담은 유인물을 충남 금산지역에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월~10년의 '옥고'를 치렀다.

박씨 등은 1981년 불법 체포를 당한 뒤 고문 조문을 받은 끝에 '응공분자'의 명에 붙었다. 지난해 5월 서울고법에서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무려 28년을 암흑 같은 시간을 보냈다.

'아람회'는 박씨 등이 지인인 김난수(57)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씌우기 위해 수사기관에 의해 조작된 도입 명칭이다. 5·18 민주항쟁 유공자인 김씨는 5·18기념재단 이사로 활동하는 등 '5월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헌신해왔다.

박씨 등은 1980년 6월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 등을 제목으로 한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이듬해 7월부터 모진 고초를 겪어야 했다. 이 가운데 이재권(사망당시 42)씨는 당시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 지난 1998년 10월 명예회복도 하지 못한 채 사망했다.

◇불법 연행과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박씨는 서울 용문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1981년 7월 19일 경찰관들에 의해 대전 보문산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자신의 집에서 학생들의 학기말 시험지를 제철하던 중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간 뒤 '아람회'의 주범이라는 허위자백을 했다.

박씨는 "광주의 실상을 금산 주민들에게 알린 것 뿐인데, 체포된 뒤 한 달간을 몽둥이로 온몸을 구타당하고 물고문도 당했다"며 "심지어 감암에 의해 유서를 쓰고, 결국 '아람회' 사건의 주범이 됐다"고 회상했다.

김현철(55)씨는 1981년 당시만 생각하면 절로 몸서리가 치진다. 대전지방검찰청 금산지청 직원이었던 김씨는 금산 경찰서에 강제 연행된 뒤 평생을 잊지 못할 참혹한 경험을 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김씨는 "성당에서 광주항쟁의 진상을 들은 뒤부터 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빨갱이'가 되고 말았다"며 "갖은 고문은 물론, 조사를 받는 내내 앞방에서 나는 비명과 신음소리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전공업기술학교 역사 교사였던 황보윤식(61)씨는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과 지인들이 지난해 5월 21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1998년 고문후유증으로 숨진 이재권씨의 묘소에서 무죄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해수, 장두석, 박천희(이재권씨의 아내), 박해진, 김현철, 조영진씨.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고문·옥고 지난 3월 9일 서울고법 배상판결 "용서는 하지만 국가폭력 다시는..."

1981년 7월 16일 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중 경찰들에게 끌려갔다.

황보씨는 "한 달 남짓 혹독한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곳이 보문산 대공분실인지조차 몰랐다"며 "출소 후에도 수사기관의 방해로 인해 수 차례 일자리를 빼앗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다.

황보씨는 "그때 받은 충격 탓인지 아직도 생소한 변호의 전화만 걸러오면 가슴이 뛰었다"며 "아람회 피해자들의 명예회복도 필요하지만, 다시는 이런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불행 없어야"=박씨 등 '아람회'

사건의 피해자들은 현재의 심경에 대해 "담담하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너무도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었지만, 늦게나마 명예를 회복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명예를 되찾는 데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사법부 등의 노력이 큰 힘이 됐다.

박씨는 "아람회에 대한 무죄 판결은 신군부가 저지른 '국가 폭력'을 단죄하고,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는 정의로운 심판"이라며 "늦게나마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사법부의 재심 과정 등을 지켜보며 당시 자신에게 고문을 가했던 경찰관들을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다. 해당 경찰관들이 법정에서 나와 불변연행 및 감금,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 강요 등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다.

하지만 아쉬움도 많다. '아람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무죄 판결 후 마음의 짐은 많이 덜었지만, 완전한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아람회' 사건의 당사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남아있다"며 아쉬워했다.

김씨는 또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찰들 역시 정권의 희생양이고 피해자"라면서 "더이상 이런 피해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른살의 5·18에게

이정강

"그날의 '상생 정신' 다시 피워야 광주 국제적 인권도시 다시난다"

현대사에서 가장 큰 민족적 비극인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30주년을 맞는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근본적 해결이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는 지금, 희생자와 그 유가족에게 깊은 형제적 연대감을 보낸다.

광주는 많은 수식어로 치장된다. 고전적 의미의 예향부터 민주, 인권, 문화, 빛 등 그러나 많은 유의미한 것 중에서 광주를 규정하고 관통하는 역사성과 상징성, 국제적 브랜드는 '5·18'과 '인권'으로 귀결된다.

80년 5·18의 집단적 상흔과 집단학습 속에서 어느 도시도 가질 수 없는 공동체의 양상에 각인된 정체성이요, 역사적 규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광주는 여전히 인권보장 체계와 인프라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5·18 국립묘지와 공원, 몇 개의 사회적 지정만으론 궁색하고 곤란하다.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 공권력 남용의 억제력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전국화와 세계화는 역사의 관성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또다픈 5·18의 과제 만큼이나 광주의 비전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이다. '분단을 돌아보고 통일을 내다보는' 것처럼 5·18을 돌아보고 인권공동체를 내다보는 것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다.

시대와 경계를 초월해 인권을 보편적 가치를 넘어 국가의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의 인권은 퇴행해 넘어 보편적 가치나 필수가 아닌 선택의 영역으로 추락하고 있다.

전국최초의 인권조례('민주인권평화도시 육성조례' 전면개정)가 지난해 10월 27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면서 시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작동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5·



18이 꿈꾸는 상생의 공동체는 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그것과 맞닿아 있다. 가까운 일본을 보더라도 오오사카 사카시나 미에현은 시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인권조례를 제정,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1천835개의 지자체 중에서 인권조례를 제정·시행중인 곳만 399개(21.7%)나 된다. 인구 80만의 오오사카 사카시시의 경우, 인권국이 설치되어 전담공무원만 50여명의 직원과 190여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으며, 미에현의 경우에는 67명의 인권 전담인력을 두고 1년에 15억원(한화 195억 5천만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각종 인권관련 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인권도시를 주창하는 광주와 단숨에 비교해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전국적으로 인권전담부서가 설치된 지자체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광주의 인권조례가 역할모델이 되고 있다. 진주, 경남, 대구, 전남·북 등 타지역의 움직임도 본격화 되고 있다.

5·18을 기억하고 추념하며, 그 정신을 보편적 가치로 인정하는 것 처럼 미래지향적인 인권조례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인권센터와 도서관 등 인프라 구축이 실행된다면 국제적인 인권도시로서의 위상과 정체성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장)

영 / 학 / 안 / 내

영화에 빠지는 재미

메가박스

배관	친정엄마 (전세)	최고급판
2관	허트로커(154)/구르물 버서난 달처럼(154)	
3관	반가운 살인자 (154)	
4관	베스트셀러 (154)	
5관	(3D)타이탄(124)/볼라인드사이드 (124)	
6관	일라이(154)/바운티헌터 (154)	
7관	릭에스-영웅의탄생(154)	
8관	(3D)타이탄 (124)/친정엄마 (전세)	
9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154)	
9관	베스트셀러 (154)	

• 호남주차타면 이용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관입국객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판 www.megabox.co.kr
구 연덕역극사거리 ☎ 1544-0600

콜롬버스시네마

1관	아이언맨 (124)
2관	일라이(154)/허트로커 (154)
3관	아이언맨 (124)
4관	아이언맨 (124)
5관	베스트셀러 (154)/반가운 살인자 (154)
6관	(3D)타이탄 (124)/G-포스(3D더빙)
7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 (154)
8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 (154)
8관	릭에스-영웅의탄생(154)
9관	친정엄마 (124)
10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 (154)

3D(4K) 디지털 상영!
4/1(목) 상무점, 아남점 동시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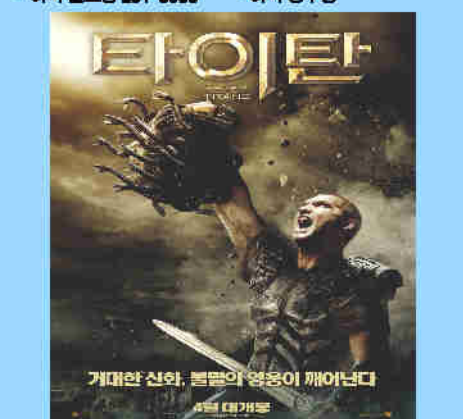


1588-7941 상무점연영 - (1번 or 2번) → 0번

하미시네마

1관	레이징 피닉스(154)/롤링 인 리브(154)
2관	그린 존(154)
3관	솔로몬 케인 (184)
4관	의형제 (154)
5관	비밀에 (184)
6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전세)
7관	타이탄 (124)
8관	타이탄 (124)
9관	육혈포 강도단 (154)
10관	폭풍전야(184)

• 5000대 범용 주차장(3시간무료) • 3D5D 디지털 상영
• 이틀 통신키오 OK 캐쉬백카드 할인 혜택
• 해미 스포츠장 288-5767 • 해미 병점 282-0825



고객사랑 고객센터 • www.hamichema.co.kr / 1586-9120
전미우문 하미스포박스 ☎ 267-7777

씨너스전대

1관	아이언맨2 (124)
2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154)/친정엄마 (전세)
3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154)
4관	볼라인드사이드 (124)
4관	릭에스-영웅의탄생(154)
5관	허트로커 (154)
5관	베스트셀러 (154)/타이탄 (124)
6관	아이언맨2 (124)
7관	아이언맨2 (124)

씨너스전대 3D(4K) 상영!!

• 무료주차 3시간 • 이틀통신사 할인혜택



씨너스전대 영화상영 • www.cinusa.co.kr / 1544-0070
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

제일시네마

1관	아이언맨2 (124)
2관	아이언맨2 (124)
3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154)
4관	구르물 버서난 달처럼(154)
5관	타이탄 (124)/친정엄마 (전세)
6관	일라이 (154)/베스트셀러 (154)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광주사무소영 호남대우주점) -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새로운 기쁨 • www.primuschema.com/www.jellochema.co.kr •
홍성로 3기 ARS 전화예매 ☎ 227-1960